

 해외파견 프로그램 체험후기 																
지원 분야	☐ 교환학생 ☐ 중·장기 어학연수 ☒ 단기 어학연수															
인적사항																
파견 정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파견 국가</td> <td>호주 시드니</td> <td>파견 학교</td> <td>그리니치 대학</td> </tr> <tr> <td>파견 시기</td> <td colspan="3">2019년도 동계 계절학기</td> </tr> <tr> <td rowspan="2">수강 과목 개요</td> <td>과목명</td> <td colspan="2">과목 설명</td> </tr> <tr> <td>해외영어회화(3학점)</td> <td colspan="2">그리니치 대학교류</td> </tr> </table>	파견 국가	호주 시드니	파견 학교	그리니치 대학	파견 시기	2019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		해외영어회화(3학점)	그리니치 대학교류	
	파견 국가	호주 시드니	파견 학교	그리니치 대학												
	파견 시기	2019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													
해외영어회화(3학점)		그리니치 대학교류														
→ 호주에서 보고 즐기고 느껴라 → 호주 시드니 어학연수 1조 조장을 맡았던 건축공학과 16학번 양호열 입니다. 조선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에게 호주 시드니에서 겪었던 다양한 스토리를 5개 분야로 나눠서 수기를 작성합니다. 제 후기를 읽고 나서 코로나가 풀리면 해외 어학연수에 도전하게 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합니다!! ① 호주 그리니치 대학 - 수업편 - 이번 호주 시드니의 어학연수는 NSW에 위치한 GreenWich College(그리니치 대학)에서 한달간 단기어학연수가 진행되었다. 처음 호주에 도착해서 홈스테이 숙소를 배정받고 대학교에 들어가 OT와 함께 학생증을 교부받고 레벨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테스트는 듣기평가, 말하기 평가로 이뤄지며 시험결과에 따라서 level이 나뉘지게 됩니다. 저희 분반은 브라질, 이탈리아, 일본, 독일, 한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섞인 분반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수업의 진행 방식은 교재를 부여받고 문법을 설명해주며 단어와 함께 말하기를 공부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한국에서 영어수업은 조용하고 개인적으로 학습하던 반면 이곳 시드니에서 수업은 참여형 수업으로 영어 퀴즈, 행맨 등 영어게임으로 즐겁고 모두 함께 팀워크를 다지는 방식이었습니다. ← [그리니치 대학교 수업 사진] 한국 등 아시아 국적의 학생들은 문법, 어휘력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유럽·남미 국가에서 온 친구들은 영어권 특성상 말하기, 듣기 부분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월~금요일까지 수업이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에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스피킹 수업, 퀴즈 이벤트 등이 진행되었고, 매주 1회 호주의 문화, 체험활동으로 구성된 Activity가 진행되었습니다. 추 후 어학연수를 희망하시는 인원은 꼭 매주 Activity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Activity 활동 목록 · 평점] ☒ 성마리아 성당 · 주립도서관 방문 (★★★★★ - 사진 명소) ☒ 포트스티븐슨 : 돌고래, 샌딩보드 (★★★★★ - 사막 보드 체험) ☒ MCA Gallery :시드니 현대미술관 (★★★★ - 시드니 뷰 명소) ☒ 시드니 주 의회 참석 ★★ ☒ 시드니 비치 투어 ★★★★★ (아름다운 해변 감상) ☒ Coogee Beach BBQ party ★★★★★ ☒ 블루마운틴 투어 ★★★★★ (흐린날씨로 인하여 아쉬운 경험) 																
체험후기																

② 호주에서 생활꿀팁!!(홈스테이 · 문화예절) - 생활편 -

1. 홈스테이 후기

- 멜버른과 시드니의 큰 차이점은 숙소에서 있다. 시드니에서는 홈스테이를 한달 간 진행하면서 호주의 문화를 24시간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룸메이트와 함께 묵었던 홈스테이 숙소로 다행히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배정받았으며 친절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다양한 나라별 음식과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 홈스테이 관련 주의사항 · 팁 ***

1. 홈스테이 숙소 배정은 랜덤이며 가정환경, 학교거리, 룸메인원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
2. 숙소 근방, 실내에 큰 바퀴벌레, 설치류, 박쥐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된다.
(호주는 동물, 벌레등 함께 생활하며 크게 놀라지 않는다는 사실!)
3. 욕실은 건식욕조가 대부분이며 타일에 물이 묻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샤워시간은 각 홈스테이 숙소마다 다르며 대개 10~15분내 빠르게 씻어야한다.)
(호주에서 물은 석회수이며 물이 귀하다!!)
4. 숙소마다 룰이 다르며, 설거지물, 먹는물 동일하게 사용한다.
(석회수로 이루어져있어서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먹는걸 추천한다.)
5. 모든 대화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다. 영국식 발음이니 주의!!

2. 교통수단



1. Bus

2. Light rail

3. Ferry

4. Metro Train



교통카드
(오파카드)

1. 버스 : 매일 노선과 시간표가 변동가능성이 있음.
2. 트램 : 새롭게 중심가에 도입된 이동수단
3. 페리 : 배를타고 시드니 내 이동가능한 해상교통수단
4. 지하철+기차 : 도시곳곳 역이 있으며 주 이동수단으로 사용.

* 시드니 교통수단 할인정보 및 꿀팁 *

1. 일일한도 일주일 한도 존재 : 한도금액 이상 시 교통수단 무료
2. 월요일부터 8회 이상 이용 시 50%금액할인
3. 환승할인 1시간. 및 충전소는 해당 어플 이용 후 충전소에서 충전
4. 일요일은 페리 가격 할인(가장 비싼 교통수단)
5. 트램, 버스, 기차 이용시 하차 TAP 찍고 내리기
6. 오파카드 앱 꼭 설치하기(잃어버린 경우 카드 중지, 금액이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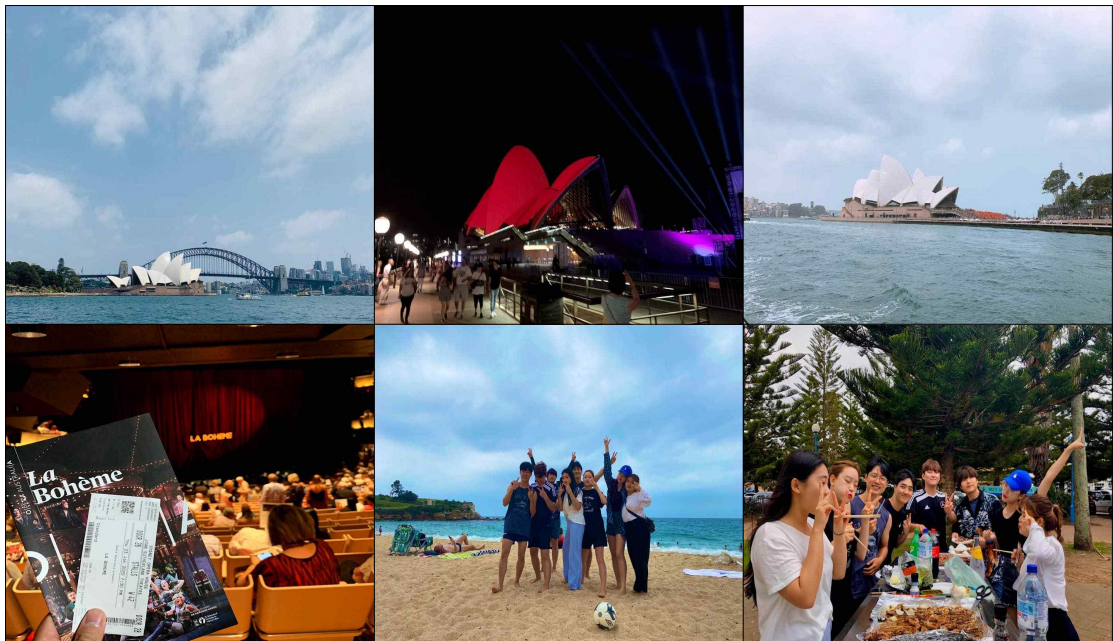
③ 호주에서 이것만은 꼭 체험하자!! - 관광편 -

1. 호주 기념일



- * 1월 26일 - Australian Day(호주 건국 기념일)
 - 호주 최대 기념일인 건국기념일로써 다양한 원주민 공연, 달링하버에서 성대한 폭죽놀이, 거리축제,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체험가능!
- * 한 여름 크리스마스
 -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 특성상 동계방학기간 여학연수 시 40도가 넘는 더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2.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 하버브릿지 · 여러 해변 가보기



1. 오페라 하우스는 유명하듯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날씨, 기념일에 따라 지붕 색상변화를 볼 수 있다. 오페라 하우스를 간다면 유명 오페라 한편 감상추천!!
2. 하버 브릿지와 오페라 하우스 주변에서 사진 찍기(사진이 잘 나온다)
 - 저녁에 야경을 보며 맥주 한잔은 필수 + 근방에서 거리공연도 많이 열린다.
3. 시드니에는 다양한 바다와 해변이 존재한다. 각 해변마다 색상, 파도 풍경 느낌이 다르며 바비큐존도 설치되어 있어서 친구들과 바비큐 파티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별했다.

이외에도 많은 볼거리와 사진 명소들이 많다. 꼭 여행책 한권 가져가길 추천한다. 시드니 내 소개하지 못한 관광지들도 많으며 한달 간의 해외파견 기간 동안 주변 도시인 멜버른, 캔버라, 뉴캐슬 등 도 여행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 * 국제학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각종 박물관, 미술관, 관광지 10% 할인 적용된다.

④ 호주에서만 주로 볼 수 있는 이색 야생의 동물~!! - 동물편 -



-위 4종류의 동물들은 호주 여러 동물원, 자연, 사막에서 자연스럽게 보고 다가갈 수 있는 호주 대표 4종류 동물들이다. 동물원에 가게되면 코알라, 쿼카와 사진찍기, 캥거루 먹이주기 등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이 존재하고 고릴라, 에뮤, 펭귄 등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동물들을 볼 수 있으니 꼭 3종류 동물원에 가보는걸 추천한다.

* 쿼카는 만지면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진찍어야 합니다~ *

⑤ 호주 맛집 BEST 1 - 맛집편 -

호주는 여러 민족이 모여 형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국가적 특성상 호주 전통의 요리가 있다가 보다는 세계 여러나라의 음식을 접할 수 있다는 특징이있다. 동남아시아의 국수 요리, 멕시코 케밥·타코, 이탈리아 피자, 프랑스 파스타 요리 등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수산시장에 가게 된다면 랍스타, 킹크랩, 새우 등 해산물도 즐길 수 있다.

체험후기



- * 호주 스타바 : Shop 600, George Street, Sydney, New South Wales 2000 Australia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3번이상 간 유일한 맛집이다. 저렴한 가격에 호주산 스테이크를 맛 볼 수가 있는데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소고기가 일품이다. 매주 10불 가격 할인행사가 있다.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간 사람은 없다”
- * 호주에서 시원한 생맥주 한잔 가격이 물보다 저렴하다.
- * 소주는 1병에 12000원 정도 한다.(한국인들이 가장 충격받은 물가입니다ㅠ.ㅠ)

* 시드니 한달 해외파견 후 느낀점

이번 해외 어학연수를 통해서 그동안 하지 못한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해준 단기 어학연수 였었다. 주 목적인 영어 들기와 회화 능력도 한달 간 영어를 사용하다보니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며, 특히 해외 친구들을 사귀게 된 점에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한 달 동안 조선대학교 재학생들을 이끌어준 브루스, 앨리 선생님 등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저와 함께 같이 생활해준 각 조장들, 친구들도 더욱 친해졌고, 각자 위치에서 고생하고 즐겁게 문화체험 했다고 생각된다.

추 후 코로나가 완화되어 다시 해외어학연수가 개방된다면 “참여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꼭 참여해보길 추천한다.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이 될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해외파견 후기를 작성하면서 호주에서 추억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돼서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